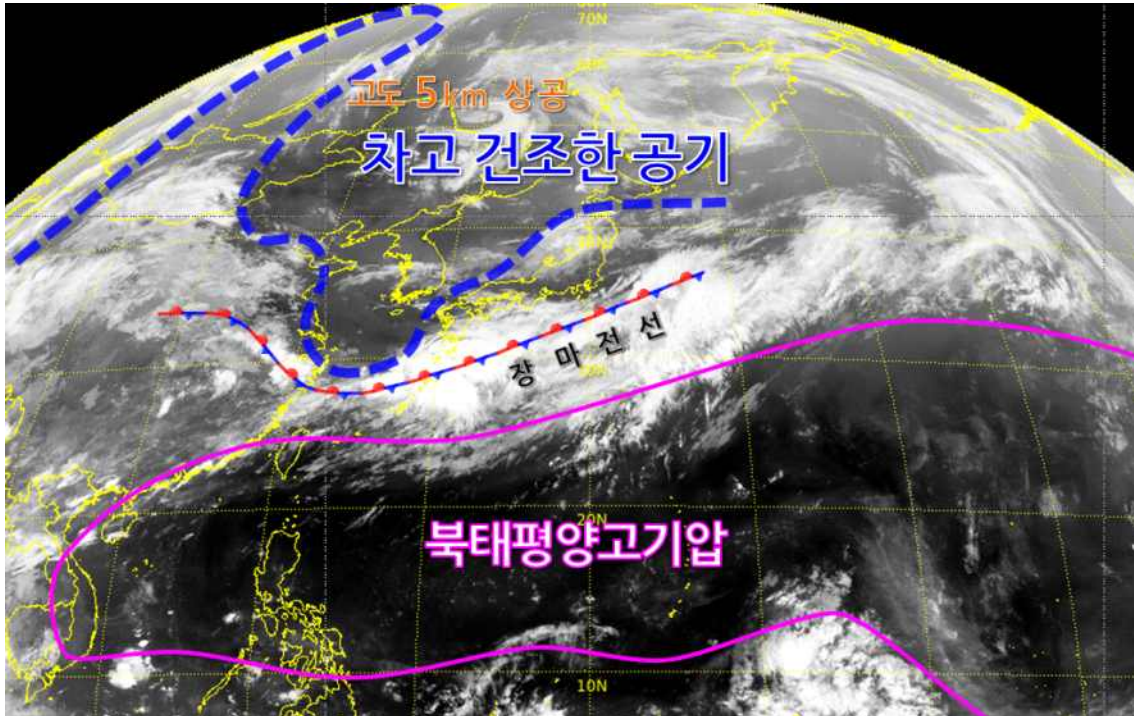


배포일시	2019. 6. 19.(수) 16:3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전지방기상청 예보과 기후서비스과	담당자	과장 허복행 과장 김충렬
		전화번호	042-863-0367

대전.세종.충남지역 7월초 장마 시작

- 베링해 부근 상공(약 5km)에 발달한 기압능
 ※ 한반도 부근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분포 → 장마전선 북상 저지
- 7월 초, 장마전선 북상하며 장마 시작할 듯
 ※ 6월 26~27일, 제주도, 남해안 장마전선 영향 비



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와 장마전선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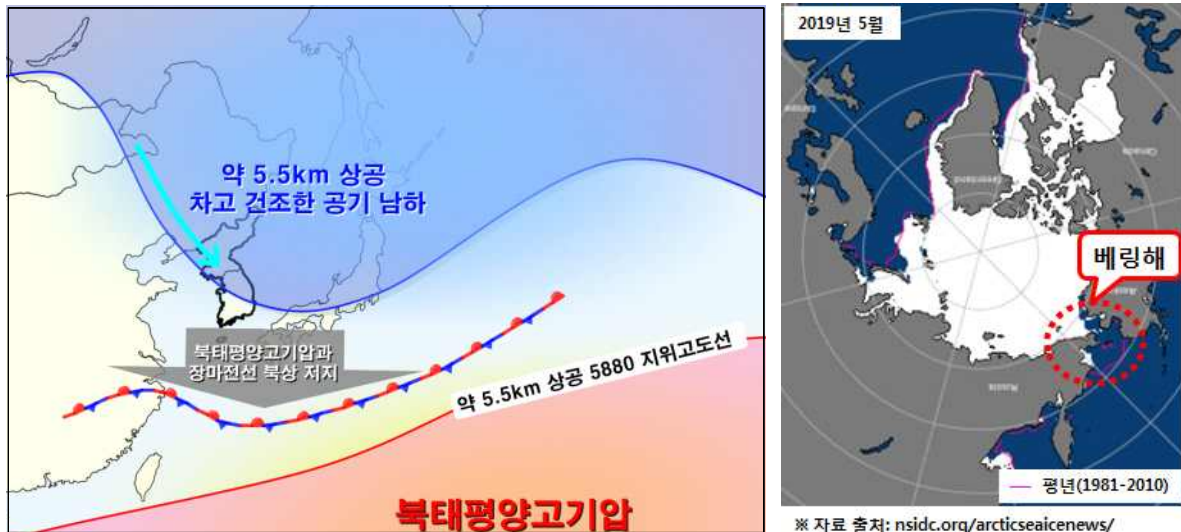
[장마 현황]

- 현재(19일 15시) 장마전선은 동중국해상에서 일본 남쪽해상까지 동서로 위치(북위 30도 부근)하면서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며, 일본 남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

< 장마 평년값과 작년(2018년) 장마 시종일 >

지역	2018년		평년(1981~2010년)			
	시작일	종료일	시작일	종료일	기간(일)	평균 강수량(mm) (최소~최대)
중부지방 (대·세·충)	6.26.	7.11.	6.24.~25.	7.24.~25.	32	366.4 (103~785) 351.4
남부지방	6.26.	7.9.	6.23.	7.23.~24.	32	348.6 (73~653)
제주도	6.19.	7.9.	6.19.~20.	7.20.~21.	32	398.6 (102~1,167)

[늦은 장마 원인]



< 최근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(좌) / 해빙 면적 분포도(우) >

- 6월 초반부터 최근까지 베링해 부근 상층(약 5km 상공)에 기압능이 발달하고, 우리나라 부근에는 상층 기압골이 위치하였습니다. 이로 인해,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어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되었습니다(그림 좌).
- 베링해 부근 상층 기압능이 발달한 원인은 이 지역의 해빙면적이 평년 보다 매우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(그림 우).

[장마 전망]

- 이후, 베링해 부근에 위치한 기압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원활해지겠고,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약해지면서 남쪽에 위치하던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겠습니다.

- 또한 다음 주 중반(26~27일), 중국남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통과하면서 제주도남쪽먼바다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그러나,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, 장마전선은 다시 제주도 남쪽먼바다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어, 대전.세종.충남지역의 장마는 7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

[장마 변동성]

- 6월 26~27일 경 예상되는 장마전선의 북상 정도는 남해상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위치와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에 의해 매우 유동적입니다.

- 저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발달하여 북상할 경우, 장마전선도 함께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예보를 적극 참고해주길 바랍니다.